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11월의 책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1월호

“겉모양이 아무리 깨져도 심장 안을 기웃거리는 무엇이 있다”

청새치와 사투 벌이는 늙은 어부 이야기 헤밍웨이, 노벨문학상·풀리처상 수상 마지막 주 수요일 ‘북토크’도 생중계



이제, 헤밍웨이(사진)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면 ‘판소리’가 자동연상된다. 소리꾼 이자람의 1인 창작 판소리 ‘노인과 바다’를 관람해왔다.

이미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과 ‘역적어머그 그 자식들’을 판소리로 재구성한 ‘사천가’와 ‘역적가’로 국내외에서 이름을 알린 그녀의 신작 ‘노인과 바다’는 망망대해에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한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인의 외로운 싸움’을 판소리로 만나는 경험은 특별하다. 주인공 산티아고의 늙은이 모습을 노래할 때, 고단한 싸움을 마치고 배 갑판에 널부러져 잠을 청하는 산티아고를 묘사할 때, 청새치에 날카로운 작살을 꽂을 때, 애써 잡은 고기가 상어떼에게 뜯겨 먹히는 장면을 바라볼 때, 동네 소녀와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그녀는 한편의 서사시를 만들어 냈다. 원작을 멋지게 재해석해낸 판소리 ‘노인과 바다’를 보면서 원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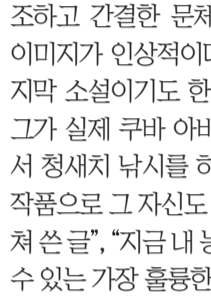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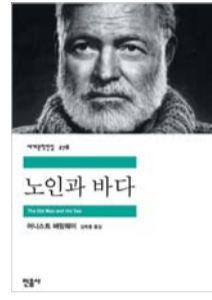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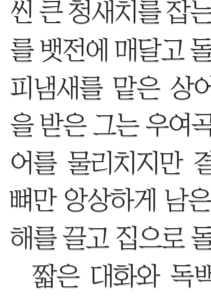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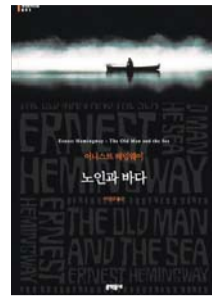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 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1월의 책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노인과 바다’가 선정됐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잡이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기잡이는 아니더라도 긴 시간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이른 것 하나 없다는 느낌에 허탈한 땀을 흘릴 도는 사랄도 있다. 84일째 되는 날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에 노인은 “오늘은 자신이 있다”고 중얼거리며 또 배를 탄다. 팍팍하게 지쳐가는 당신, 아침에 집을 나서며 “오늘은 자신이 있다”고 중얼거리는 자

신이 보이는가? “죽기까지 싸워라”는 문장을 자신의 고유한 호흡에 저장할 수 있는가? 삶은 투쟁이다. 겉모양만 다듬는 투쟁으로는 진짜처럼 살아가기 어렵다. 겉모양이 아무리 깨져도 심장 가까에서 심장 안을 기웃거리는 그 무엇이 있다.” 최 교수가 ‘노인과 바다’를 선정한 이유다.

노벨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동시에 수상한 헤밍웨이는 현대문학사의 빛나는 이름이다. 세계 1차 대전에 직접 참여병역 수행자 운전자로 참전한 것을 비롯해 그리스 터키 전쟁, 스페인 내전 등에 참여한 행동파 지식인이었던 그는 전쟁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무기여 잘 있거라’를 비롯해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등의 걸작을 펴냈다. 하지만 비행기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자택에서 염통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에게 풀리처상을 안긴 ‘노인과 바다’는 쿠바 연안을 배경으로 거대한 청새치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희망과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84일째 아무 것도 잡지 못한 산티아고는 홀로 바다로 나갔다 자신의 배보다 훨



민음사, 문학동네, 열린책들 등 세계문학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출판사들은 모두 ‘노인과 바다’를 내놓았다. 이 중 ‘열린책들’ 세계문학시리즈는 ‘노인과 바다’와 함께 ‘킬리만자로의 눈’, ‘프랜시스 매코머의 짧고 행복한 생애’,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등 스스로 자신의 대표작이라 밝힌 단편소설까지 총 8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초판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더 클래식’은 책이 발간된 1952년 판 표지를 그대로 사용해 출간, 눈길을 끈다.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최교수가 ‘노인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또 내용은 광주 일보와 새말새몸짓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12월 첫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 작가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연남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6년 ‘클릭, 문화현장’ 신안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된 지 6주년이 되는 해.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11월호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조망한다.

그동안 광주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핵심 시설인 AMT(Art and Media Technology) 착공, 홀로그램 극장 오픈, 유네스코 창의벨트 추진 등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지적과 함께 미디어아트를 명실상부한 도시 브랜드로 키워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장미빛 미래를 위한 방안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전략 등을 들여다봤다.

예향 초대석이 만난 인물들은 뮤지컬 ‘광주’ 고선웅 연출가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뮤지컬 ‘광주’가 무대에 올려졌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 정신을 굳게 지켜낸 광주 시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그려낸 고선웅 연출가의 ‘광주’ 이야기와 연극인생에 대해 들었다. 지난 10월 9일 서울 첫 무대를 올린 감동적인 공연 리뷰도 준비했다. 뮤지컬 ‘광주’의 광주 공연은 오는 12월 11-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깊어가는 가을 ‘클릭, 문화현장’은 한국판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내건 신안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현장을 소개한다. 1000여 개의 섬을 거느리고 있는 신안군은 인구 4만2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볼거리가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의도 생가와 세계적인 작가 김환기 화백의 안좌도 고택,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의 배경 흑산도까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여기에 ‘1도 1뮤지엄 프로젝트’까지

더하여 명상과 예술섬으로 떠오른 아트 프로젝트 현장을 다녀왔다. ‘싸움싸움 남도 한 바퀴’의 가을 여행은 ‘문림의향’ 정흥으로 향한다. ‘정남진’ 장흥은 이청준과 한승원 작가의 소설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 동학농민군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득량만과 탐진강, 제암산·천관산 풍광에는 장흥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다.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굴구이와 매생이가 탐방객들을 유혹한다. 먹거리 불거리 가득한 장흥의 매력을 찾아 나섰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잠식한 2020년은 원망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초록식물과 친해지기, 마음의 힘 키우기 등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전한다.

화제의 전시는 ‘연남’ 11월호 표지를 장식한 미디어파사드 행사 소식이다. 지난 9월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미디어 파사드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1980년 ‘죽음의 공간’이었던 옛 전남도청 인근 상무관에 빛을 쏘아 ‘부활의 공간’을 연출한 당시의 현장을 다양한 사진을 통해 되돌아 본다. 표지 사진인 전시영 작가의 ‘빛과 사람’은 오월 현장인 상무관 외벽을 활용해 오월의 미래지향적 계승을 이야기한다.

이외에 어머니와 함께한 티베트 순례를 담은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 정경민 감독과 청룡기 전국교과교구 선수권대회 중우승 주역으로 프로무대에 도전하는 ‘동성고 5인방’ 김영현, 최상민, 이준범, 박대명, 김시영과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잔잔한 감동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이한우 화백 초대전, 12월 13일까지 남포미술관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오는 12월 13일까지 통영 출신 이한우 화백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 마사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가 틈틈이 그렸던 수채화를 모아 소개하는 자리로 통영 바다와 가족들의 모습, 여행 중 인상 깊었던 파리의 풍경 등이 담긴 수채화 소품 53점과 2000년대 이후 작업한 유화작품 1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 화백은 한국화의 기법 위에 서양화의 토착화를 시도한 독특한 화풍으로 작업하는 원로 작가다. 특히 한국의 산하와 한민족의 서정을 독특한 시선과 화사하고

깊은 색조로 표현한 ‘아름다운 우리 강산’ 시리즈를 통해 명성을 얻었다. 고향 풍경을 배경으로 기와집과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있고 사람들과 가족들이 한가롭게 어우러져 있는 작품 속 정겨운 화면은 평화로움과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는 작가 노트에서 자신의 작업이 동양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의한 조형 활동임을 강조한다.

1928년 통영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프랑스 록상부르 상원미술관 초대 개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한·일 미술 교류전, 대만역사박물관 초대전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에 참여했다. 2000년 보관문화훈장, 2006년 프랑



이한우 작 ‘아름다운 우리강산’

스문화사 예술과문학 기사훈장, 2009년 은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LOTTE CINEMA | **중앙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3관	담보, 위플래쉬, 테슬라 마이 리틀 포니: 레인보우 로드 트립
4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5관	담보
6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9관	소리도 없이
7관 씨네커튼	소리도 없이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8관 씨네커튼	미스터트롯: 더 무비, 위플래쉬 소리도 없이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 '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연극 '청문녀'도망친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녀'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